

옛날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아주 사이가 좋은 남매였어요.

집은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늘 함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헨젤과 그레텔의 집에 새엄마가 오게 되었어요.

“오늘부터 너희와 함께 지낼 새엄마란다. 새엄마 말 잘 들으렴”

“오늘부터 너희랑 지낼 새엄마란다. 잘 지내자꾸나 호호호.”



새엄마는 사실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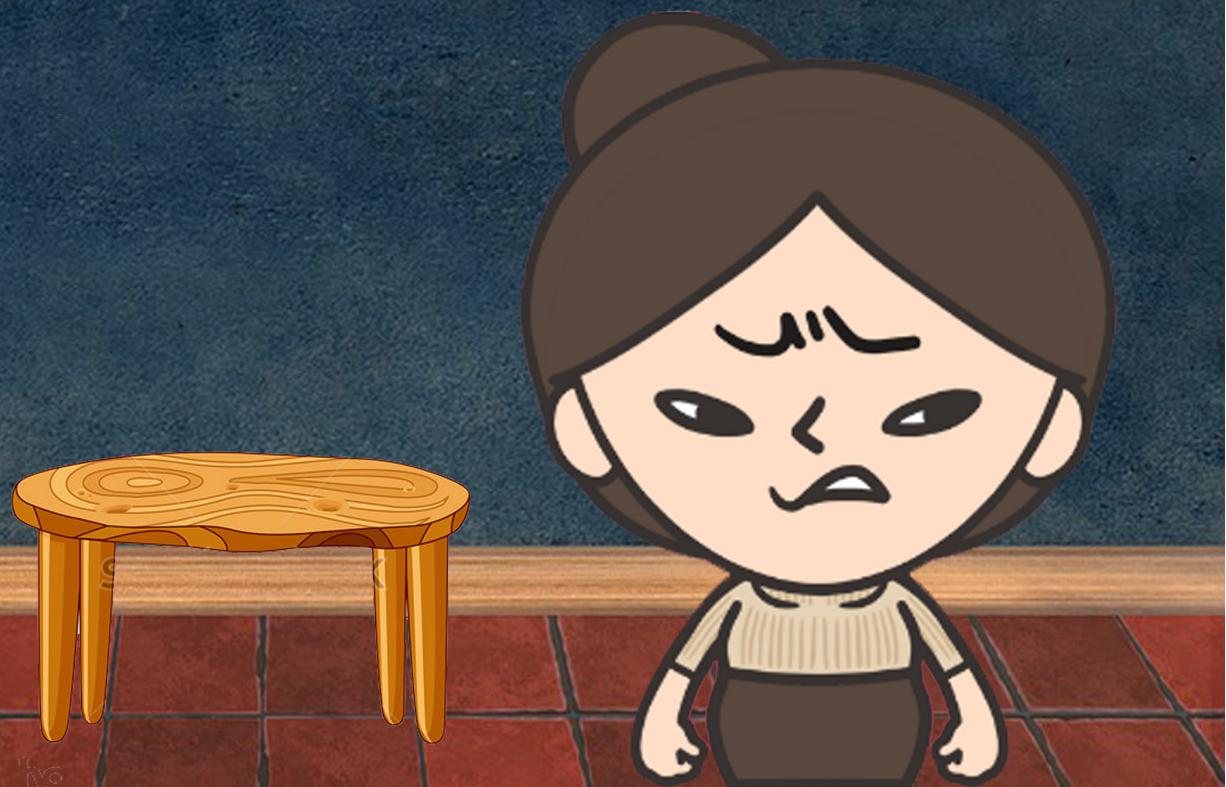
헨젤과 그레텔의 가족이 가난한 사실을 알게 된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을 산 속에 버리기로 결심했어요.

“집이 이렇게 가난해선 내가 먹을게 없잖아!

안되겠어, 내일 아이들을 숲 속에 데리고 가서 몰래 버리고 와야겠다.”

헨젤과 그레텔은 문틈 사이로 새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새엄마가 우릴 버리려고 하나 봐. 어떡하지?”



헨젤은 좋은 생각을 떠올렸어요.

“개울가에서 돌멩이를 주워오자 그레텔.

길에 조약돌을 놓아 표시를 해두면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거야!”

다음날 아침, 헨젤과 그레텔은 조약돌을 주우러 개울가에 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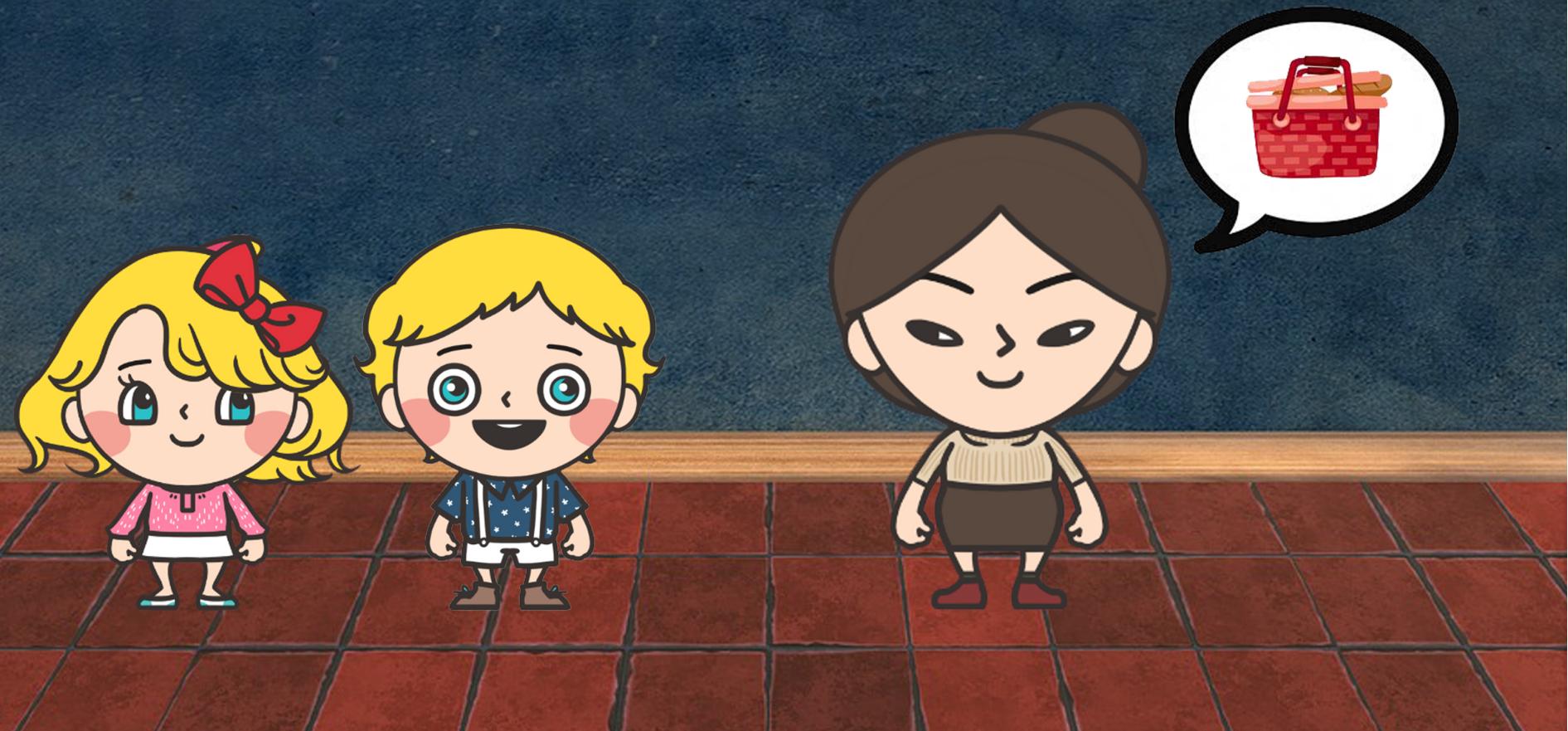


다음날 아침,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을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얘들아 오늘 날씨가 정말 좋구나. 새엄마랑 같이 숲으로 소풍을 가지 않겠니? 호호”

하지만 새엄마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흥, 너희들을 숲 속에 버린 다음 앞으로는 너희가 먹는 빵도 내가 모두 독차지할거야.’



헨젤과 그레텔은 새엄마를 따라 숲 속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제 개울가에서 주워 온 조약돌을 길에 하나씩 놓고 갔어요.

“이 조약돌을 보고 길을 따라가면 나중에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이 조약돌을 놓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이 정도 왔으면 아이들이 집을 찾아오기 힘들겠지? 얼른 도망가야겠다.’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을 숲 속에 두고 혼자서 집으로 도망쳤답니다.





두 사람은 조약돌을 따라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 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져서 어두워진 저녁이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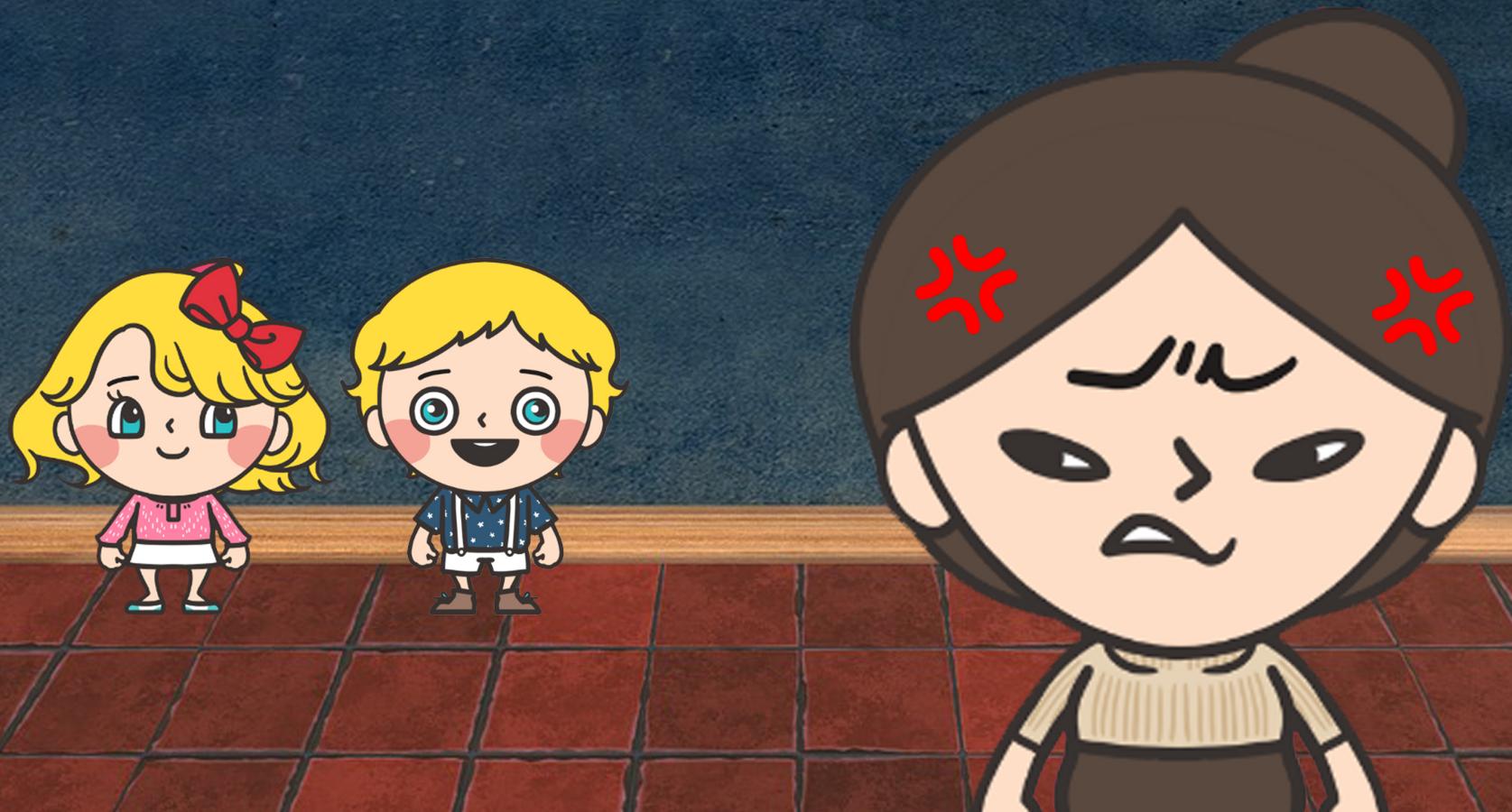
“저기 시계를 봐 그레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어. 빨리 집으로 들어가자.”



다음날 아침, 헨젤과 그레텔이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본 새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어떻게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

안되겠어. 지금 당장 다시 숲 속으로 데려가야겠어.”



헨젤과 그레텔은 새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떡하지? 이번에는 조약돌이 없는데……”

“조약돌 대신 빵을 챙겨가자 오빠. 이걸 찢어서 길에 표시하면 될 거 같아.”

“좋은 생각이야 그레텔. 그리고 집에서 물건을 하나 더 챙겨갈까?”





헨젤과 그레텔은 새엄마를 따라 숲 속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번엔 빵을 찢어 길에다 표시를 해놨어요.

하지만 숲 속에 사는 새들이 배가 고풀 나머지 빵 조각을 모두 먹어 치우고 말았어요.

지난번보다 더 깊은 숲 속으로 들어오자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길에 두고 온 빵 조각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빵 조각이 없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큰일이야 오빠. 길에 빵 조각이 하나도 없어.”

“숲 속에 사는 새들이 배가 고파서 빵 조각을 먹어 버렸나 봐. 어떡하지?”

두 사람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새엄마가 저번보다 더 깊은 숲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어요.

숲 속 어디를 가도 보이는 것은 온통 나무 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은 배가 너무 고파 지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때,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했어요.

“오빠,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나도야 그레텔. 우리 한번 이 냄새를 쫓아서 가보자.”

냄새를 따라서 길을 나선 헨젤과 그레텔은 깜짝 놀랐답니다.

그 곳에는 무려 과자로 만든 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빠, 과자로 만든 집이야! 굉장하다!”

“그래 굉장해 그레텔. 이 집에 사는 사람에게 먹을 걸 좀 나누달라고 부탁해보자.”

헨젤은 과자로 만든 집의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는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집 주인이 지금 집에 없나 봐 어떡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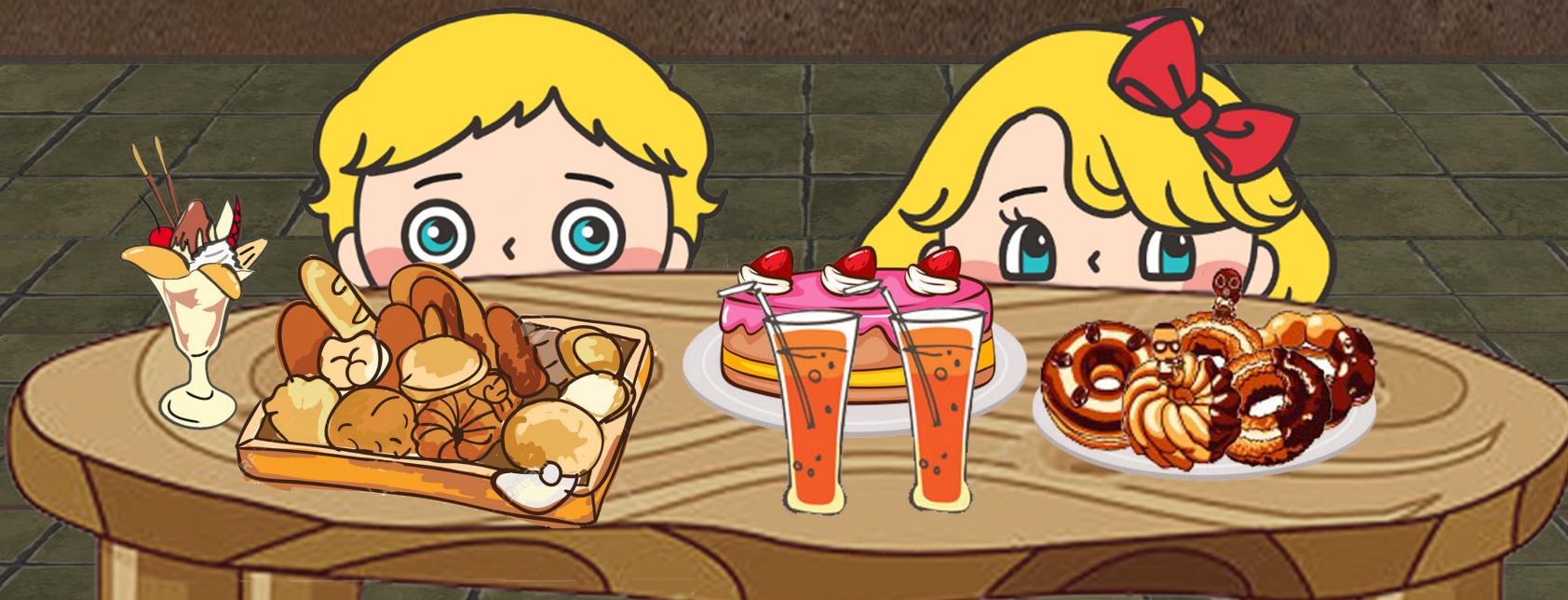
“우와 테이블 위를 봐. 맛있는 과자들이 잔뜩 있어.”

집으로 들어간 헨젤과 그레텔은 감탄했어요.

테이블 위에 맛있는 과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빠 저 과자들 좀 봐. 엄청 맛있을 거 같아. 배가 너무 고풀데 하나만 먹으면 안될까?”

“나도 배가 고파 그레텔. 하지만 주인의 혀락 없이 함부로 남의 물건에 손대도 될까?”



“배가 너무 고파서 어쩔 수 없는 걸. 일단 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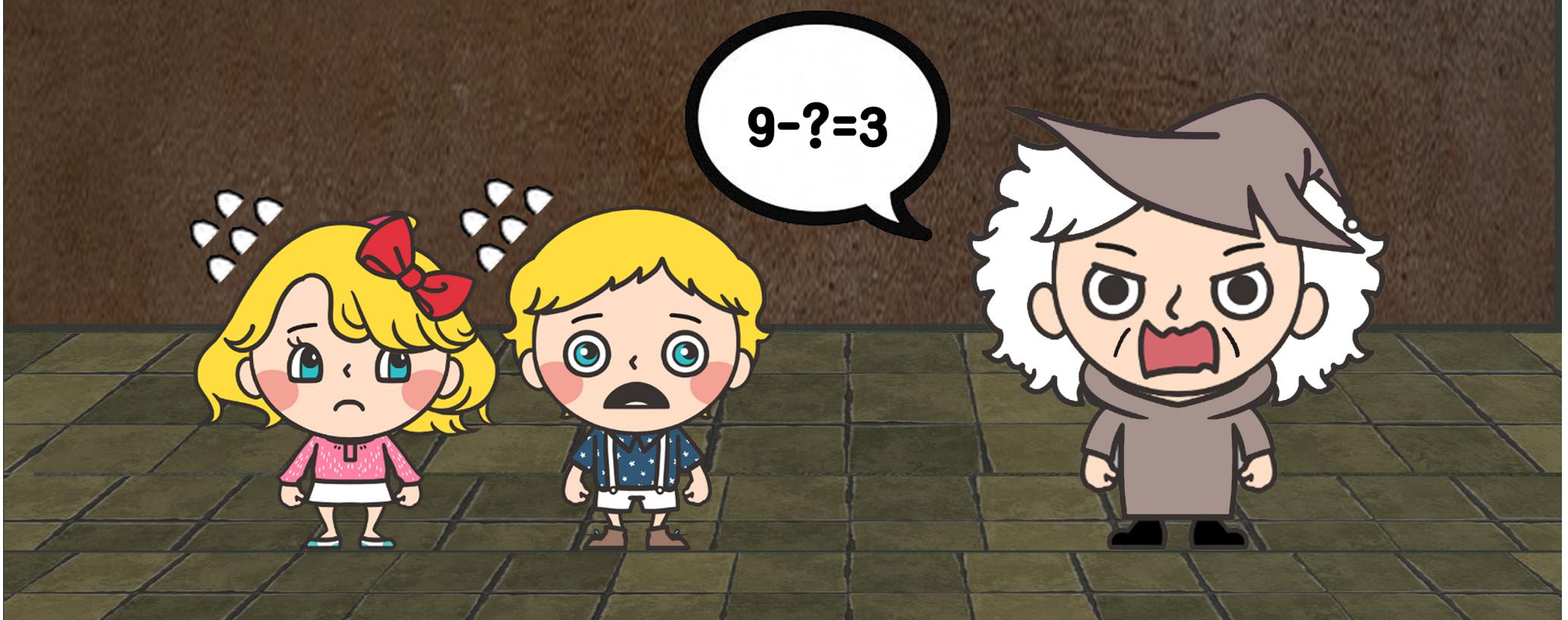
배가 너무 고팠던 헨젤과 그레텔은 결국 테이블 위에 있는 과자를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외출을 갔다 온 마녀가 그 모습을 보고 헨젤과 그레텔에게 소리를 쳤어요.

“이 못된 녀석들! 주인 허락 없이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다니!!

과자가 9개나 있었는데 겨우 3개 밖에 안남았구나!!”

$$9 - ? = 3$$



“음식을 먹었으면 당연히 돈을 내야지?”

헨젤과 그레텔은 고민했어요.

“어떡하지?”



마녀는 헨젤을 창고에 가두었어요.

“오빠 쪽이 몸집이 크니까 먹을 게 더 많을 거야.

여동생은 더 클 때까지 집안 일을 시켜야겠다.”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무서웠어요.



마녀는 그레텔에게 집안일을 시켰어요.

“집이 지저분하니 집 청소를 해놓거라.”

그레텔은 마녀가 너무 무서웠기에 어쩔 수 없이 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우선 청소도구부터 쟁겨야지. 청소를 하는데 필요 없는 물건은 다른 곳으로 치워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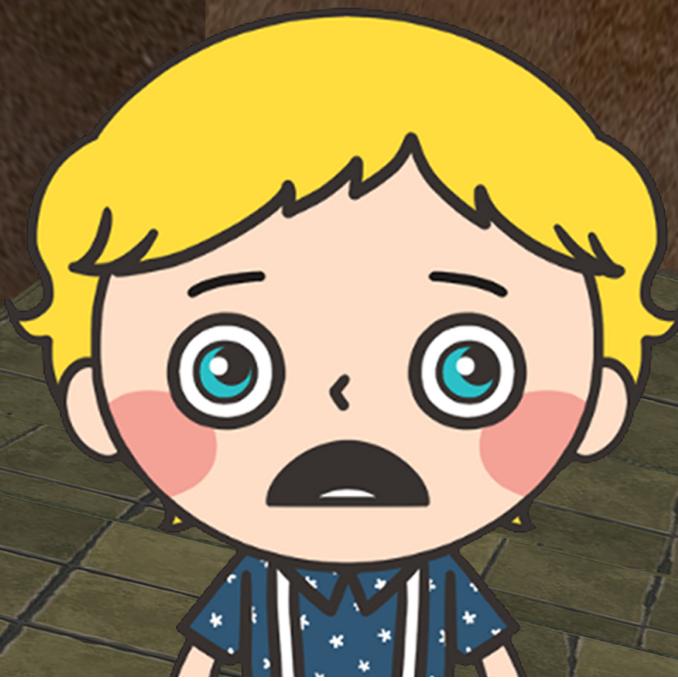
여칠이 지나고, 마녀는 헨젤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살이 포동포동 찼겠지?

여기 문틈 사이로 손을 한번 내밀어 보렴.”

헨젤은 고민했어요.

“어떡하면 좋지?”



마녀는 헨젤의 손을 잡더니 깔깔 웃었어요.

“살이 포동포동 한 게 먹을 게 정말 많겠구나. 지금 바로 잡아 먹어야겠다!!”

헨젤은 너무 무서웠어요.

“살려주세요!! 마녀가 저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누가 절 좀 도와주세요!!”





그 후로

헨젤과 그레텔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